

## 호주에서의 생활

© 호주 연방 정부 2007

본 책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보호법 1968에 의거한 사용을 제외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책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나 재사용에 관한 문의와 요청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됩니다.

Commonwealth Copyright Administration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Robert Garran Offices, National Circuit  
Barton ACT 2600

웹 사이트 주소 [www.ag.gov.au/cc](http://www.ag.gov.au/cc).

ISBN 978 1 921446 47 4

2007년 10월 출판

본 책자는 온라인 상에서 영어와 많은 지역 사회 언어로 제공됩니다.  
본 책자의 사본은 웹사이트 [www.immi.gov.au](http://www.immi.gov.au)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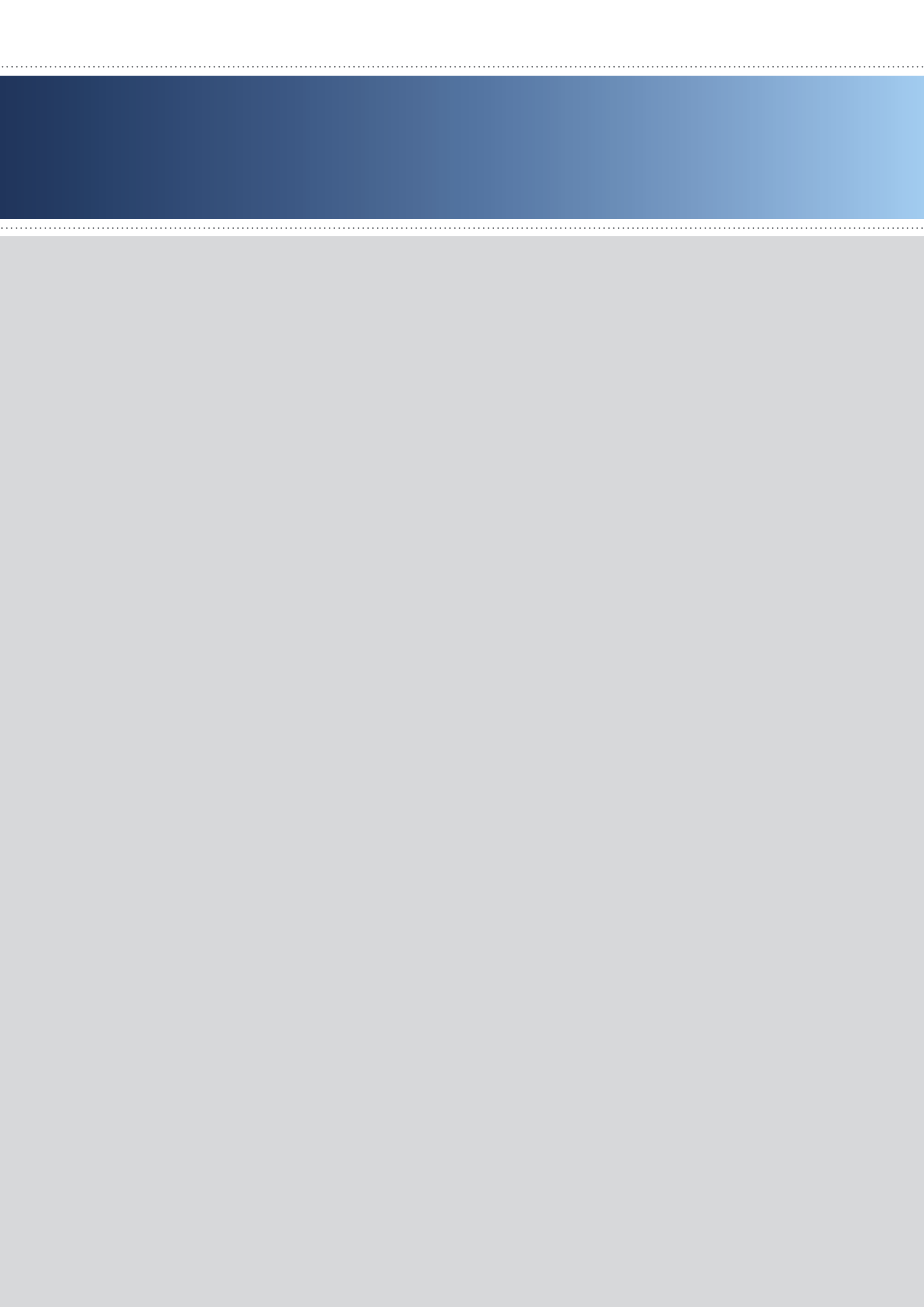
통역사 상징 (Interpreter Symbol)은 연방, 주, 테리토리 정부들과 연계한 빅토리아 주 다문화 사무소가 개발한 국가 공공 정보 상징이다.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이 정부 지원 언어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어디에서 요청해야 되는지를 이 상징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 상징은 공립 병원, 경찰서, 공립 학교, 지역 사회 센터, 주택 및 고용 사무소, 지역 카운슬, 이민자 자원 센터와 같은 정부와 지역 사회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

통역사 상징은 2006년 5월 빅토리아 주에서 공식 제정되었다.

# 목차

<b>머리말</b>	<b>1</b>
<b>호주의 가치관 성명문</b>	<b>2</b>
임시 및 영주 비자 신청자를 위한 호주의 가치관 성명문	2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를 위한 호주 가치관 성명문	3
<b>호주의 가치관과 원칙들</b>	<b>4</b>
<b>호주-스냅 사진</b>	<b>8</b>
사실 정보	10
국가 상징	11
<b>국가와 국민</b>	<b>14</b>
기후	14
환경	15
초기 호주인들	15
초기의 유럽 이주자들	17
국가의 탄생	18
전쟁의 영향	19
번영과 변화	20
호주를 조국으로 선택한 사람들	21
민주주의와 정부	22
<b>오늘날의 호주 사회</b>	<b>26</b>
법률과 사회 관습	26
변화해 가는 가족의 역할	30
호주식 영어	32
경축일과 공휴일	33
스포츠, 여가 활동 및 예술	34
과학 부문의 업적과 혁신	36
<b>호주의 생활</b>	<b>37</b>
고용 및 근로 조건	37
주택	38
사회 보장	39
병원과 의료비	40
영어 교육	40
통역 및 번역 지원	41
교육	41
운전 면허	42
주요 연락처	42
<b>호주 시민 되기</b>	<b>43</b>
시민권의 특권	43
의무	43



# 머리말



본 책자는 호주에 거주하기 위해 영주 비자나 단기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서, 호주 역사와 생활 양식, 공동 가치관 등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많은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호주 가치관을 존중하고 호주 법률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호주의 가치관에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동등한 가치 존중,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세속 정부, 결사의 자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 법 앞에서의 평등, 남녀평등, 기회 균등, 평화 정신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성, 상호 존중, 관용, 불우 이웃에 대한 온정을 포괄하는 평등주의 정신과 공익 추구의 원칙도 존중한다.

또한 영어가 국어로서 호주 사회를 통합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책자는 호주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이민자와 함께 일을 하거나 친지가 최근에 호주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호주 정부는 호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 갈 새로운 나라의 유산과 언어, 풍습, 가치관, 생활 양식 등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알고 자격을 갖추어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는 등,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호주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호주는 새로이 이주해 온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안정되고 풍요로우며 민주적인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호주인들과 함께 통합된 사회를 이루어 공동의 가치관과 의무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 상세 정보

특정 주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본 책자에 소개되어 있는 관련 웹사이트와 기타 자료 출처를 참조할 수 있다.

호주에서의 생활과 근로 여건에 대한 정보는 이민 시민권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웹사이트 ([www.immi.gov.au](http://www.immi.gov.au))에서 호주에서의 생활 (Living in Australia) 섹션에 안내되어 있다.

호주 정착에 관한 상세한 정보도 DIAC 웹사이트에 제공되어 있는 *호주 생활 시작 (Beginning a Life in Australia)*이라는 제목의 안내서 시리즈에 소개되어 있다. 이 안내서는 영어와 많은 기타 언어로 호주의 각 주와 테리토리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용한 지역 정보와 연락처에 대한 안내는 자신이 거주할 주나 테리토리를 다루고 있는 책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외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승인을 받은 경우, 호주에 오기 전에 호주 문화 예비 교육 프로그램 (Australian Cultural Orientation Programme: AUSCO)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호주로 오는 여행편과 정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 책자의 사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민 시민권부에 직접 요청하거나, 부처의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 호주의 가치관 성명문 (Australian Values Statements)

## 임시 및 영주 비자 신청자를 위한 호주의 가치관 성명문

임시 및 영구 비자와 일부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은 본 책자에 포함된 호주 생활 전반에 관한 정부 제공 자료를 읽거나 설명을 들어야만 한다. 해당 신청자들은 차후 호주 시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 해야 한다. 본 성명문은 해당 비자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18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들은 성명문에 서명을 해야 한다.

## 호주의 가치관 성명문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이 성명문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은 호주 정부가 제공한 호주 사회와 가치관에 관한 정보를 읽거나, 설명 들었음을 확인한다.

본인은 다음을 잘 이해한다.

- 호주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 남녀평등 및 상호 존중과 관용, 공정성, 불우 이웃에 대한 온정을 포괄하는 평등주의 정신, 그리고 공익 추구의 원칙을 존중한다.
- 호주 사회는 인종과 종교, 또는 민족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개인에 대한 기회 균등을 존중한다.
- 영어는 국어로서 호주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인은 호주 체류 기간 동안 이러한 호주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본인은 시민권 신청 시 다음의 내용을 이해한다.

- 호주 시민권은 호주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동의 고리이자 정체성이다.
- 호주 시민권에는 권리와 의무가 수반된다. 호주 시민권에 수반되는 의무에는 투표와 배심원 소집에 관련된 의무를 비롯하여 호주법 준수 의무가 포함된다.
- 본인이 호주 시민의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본인의 신청이 승인되면 호주와 그 국민들에 대해 충성을 맹세해야 함을 이해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비자 주 신청자가 가치관 성명문을 읽고 '예', '아니오' 를 가리키는 버튼을 선택해야 한다. 신청 시 18세 이상의 피부양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추가 문장이 포함된다.

본인을 비롯하여 본 신청건에 포함된 18세 이상의 모든 신청인은 호주 사회와 가치에 대해 호주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읽거나 설명 들었으며 이에 동의한다.

이러한 경우 주 신청자가 본인과 피부양인을 대표하여 진술을 하게 된다.



##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를 위한 호주 가치관 성명문

해당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도 호주 가치관 성명문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성명문은 비자 신청서 일반 진술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가치관 서명을 갈음한다.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책자를 읽을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음의 호주 가치관 성명문은 대부분의 단기 체류 비자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다.

*본인은 호주 체류 기간 동안 본 양식에 열거된 바와 같은 호주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호주법을 준수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성명문이 약간 다르다.

*본인은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이 신청서의 서두에 열거된 바와 같은 호주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호주법을 준수할 것이다.*

18세 이상의 피부양인이 포함되는 인터넷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추가 문장이 포함된다.

*본인을 비롯하여 본 신청 건에 포함된 18세 이상의 모든 신청인은 해당 요구 사항에 동의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비자 주 신청자가 본인과 피부양인을 대표하여 가치관 성명문을 읽고 '예', '아니오' 를 가리키는 버튼을 선택해야 한다(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호주의 가치관과 원칙들

안정되고 평화스러우며 번영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호주인은 출신 배경을 막론하고 호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의 원칙과 가치관을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들이 호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이룬다.

-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및 동등한 가치에 대한 존중
- 언론의 자유
- 종교의 자유와 세속 정부
- 결사의 자유
-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
- 법 앞에서의 평등
- 남녀평등
- 기회 균등
- 평화 정신
- 관용, 상호 존중, 불우 이웃에 대한 온정을 포괄하는 평등주의 정신.

이러한 가치관은 많은 다른 국가들도 일정 부분 공유하는 것이기는 하나 호주의 경우 전세계로부터 수백만의 이주민들이 호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상황에 맞게 변화와 현대화를 거듭해 왔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관들을 각기 다른 형태로 표현하겠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호주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호주 원주민들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들이었으며 이들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류에 속한다. 호주의 첫 번째 이민자들은 대부분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으로 이들의 앵글로-켈트계 유산이 호주 역사와 문화, 정치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아프리카와 아시아, 미대륙, 유럽 등지에서 이민자들이 속속 호주로 들어 오면서 이들 역시 호주와 그 생활 양식에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여해 왔다.

이러한 공동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천명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똑 같은 신념으로 유사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사고하는 개인과 '다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존중이 호주 민주주의의 근본임을 밝히고자 함이다.

이 성명문의 목적은 새로운 거주자들이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이고, 단결되면서도 다양한 모습의 사회 조성에 일조해 온 기본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부가 질서 있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사회의 유지를 위해 제정한 호주법률을 준수해야만 한다.



## • 기본권 보장

모든 호주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호주 내 이동의 자유와 같은 많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동등한 가치에 대한 존중

호주인 개개인도 자유롭고 동등하며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인종차별금지법 1975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와 *성차별금지법 1984 (Sex Discrimination Act 1984)*, *장애인차별금지법 1992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연령차별금지법 2004 (Age Discrimination 2004)*를 근거로 호주 연방법은 공공 생활의 여하한 범위 내에서도 인종과 성별, 장애 및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 및 기회 균등 위원회(*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가 이러한 법에 의거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호주인들은 사회 내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폭력과 협박, 모욕의 사용을 거부한다.

### 온라인 정보

인권 및 기회 균등 위원회 [www.hreoc.gov.au](http://www.hreoc.gov.au)

## • 언론의 자유

모든 호주인들은 타인을 위협에 처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주제나 문제, 인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호주 신문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기타 언론 매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호주인들은 정부 조치에 대한 항의와 법률 개정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나 거짓말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법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문화나 인종, 배경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 • 종교의 자유와 세속 정부

모든 호주인들은 호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종교를 믿을 수 있고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종교적 배타성은 호주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호주는 세속 정부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종교나 국교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종교법은 호주에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며 이혼과 같은 문제들은 호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증혼과 같은 특정 종교나 문화적 관습에 따른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 • 결사의 자유

법에 따라 호주인들은 집회의 자유와 정부나 다른 조직에 항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단, 항의는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이나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손해서는 안된다. 결사의 자유에는 합법적인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가입 대상 기관과 단체로는 정당, 노조, 사회 단체 등이 있다.

## •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 제도에 대한 지지

호주는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 방법과 사회의 대표 선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선출된 의회 만이 법률 제정이나 법률 제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정부가 제정한 법률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정치인이나 경찰과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군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법 앞에서의 평등

모든 호주인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는 누구도 인종이나 민족성, 출생국,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장애,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기관과 독립적인 법정은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라는 것은 취업이나 승진이 개인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정치적인 신념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술과 능력,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사람들이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혼인 상태를 이유로 상점이나 호텔과 같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남녀 평등

남성과 여성은 호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직업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남성과 여성은 공히 군 복무와 공직 근무가 가능하다.

## • 기회 균등과 평등주의

호주인들은 이른바 '공정한 기회'와 기회 균등을 가치있게 여긴다. 이는 개인이 삶에서 성취하는 것이 타고난 신분이나 특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노력, 근면성의 결과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호주인들은 상호 존중과 관용, 공정성을 포괄하는 평등주의 정신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거나 동등한 부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호주 사회에서 계급으로 인한 형식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평화 정신

호주인들은 평화로운 호주 사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토론과 평화스러운 설득,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호주인들은 개인의 생각이나 법률을 바꾸는 수단으로써 폭력의 사용을 거부한다.

이러한 가치관 이외에 호주인들은 공익과 불우 이웃에 대한 온정을 추구한다.

이러한 강한 지역 사회 정신을 바탕으로 호주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개선하고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호주인들이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때에 공익 정신을 발휘하여 지원 활동에 나서는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호주에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강한 '동료 의식(mateship)'의 전통이 있으며, 동료는 배우자, 파트너, 형제, 자매, 자녀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전혀 모르는 타인일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사회 봉사과 자원 봉사도 훌륭히 뿌리 내리고 있다.

호주인들은 위에서 소개된 가치관들을 여러 해에 걸쳐 끊임없이 논의하고 고양시켜 왔으며 이러한 가치관들을 바탕으로 호주는 수많은 인종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은 역동적인 사회를 이루는 힘이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호주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함께 모든 호주인들은 호주에 대한 약속, 즉 호주의 법과 가치관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 호주-스냅 사진

## 지리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 중 하나이며 사람이 사는 섬 중에서 가장 크고 여섯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국가이다. 기후가 가장 건조한 지역에 속하기도 해서 경작이 가능한 땅은 전체 국토의 6퍼센트에 불과하다.

엄청난 규모의 호주 국토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그 규모와 도시간 이동 거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 크기를 보면 동서로 4천 킬로미터, 남북으로 3천 7백 킬로미터에 달하며, 시드니에서 퍼스까지 비행 시간만도 5시간 정도 걸린다.

전체 면적 면에서 보면, 호주는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만한 크기이고, 인도의 2배, 영국의 32배에 이른다.

## 국민

호주의 원래 거주자들은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으로, 이들은 적어도 4만년에서 6만년 전부터 호주에 거주해 왔다.

나머지 호주 거주자들은 1788년 이후 호주에 정착해 온 유럽인을 비롯해서 200여개국 출신의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다.

1945년 호주의 인구는 약 7백만을 헤아렸다. 그 이후 67만 5천여명의 난민을 포함해서 6백 5십만 이상의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해왔다.

오늘 날 호주의 인구는 2천 1백만 명에 달하며, 그중 43퍼센트가 본인이나 부모가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와 인종, 민족, 사회적 배경을 지닌 호주인들이 함께 모여 평화롭게 살고 있다.

## 공동의 가치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하여 성공적으로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냈다. 이민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여를 바탕으로 호주는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어왔다.

오늘날 호주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그 국민들의 문화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호주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통해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다. 호주인들은 개인 간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소중히 여긴다.

호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호주인들은 자신의 문화와 신념을 표현하고 호주의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그와 동시에 모든 호주인들은, 머리말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호주 생활 양식의 바탕을 이루는 공동의 가치관과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 독립 국가

호주는 독립 국가이며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외향적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로서, 민주적인 제도와 문화적 다양성, 건설적인 국제 및 지역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사에 적극 동참한다.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호주는 국가적 책임을 준수하는 가운데 양자, 지역, 다자간 전략을 추구하여 국익을 도모한다.

## 튼튼한 경제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튼튼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호주는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제도를 갖추어 기업 활동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호주는 안정된 국내 및 국제 수송 체제와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 통신 기술, 다중 언어 구사 능력을 겸비한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과 선진 규제 체도를 갖춘 지역적 금융 중심지로서 자리잡기도 했다. 호주 증권 거래소는 시가 총액 기준으로 세계 8위에 해당된다.

호주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공히 그 교역규모가 4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세계 교역의 약 1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이 호주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고, 중국, 미국, 싱가포르, 영국,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온라인 정보

- 호주 통계국 [www.abs.gov.au](http://www.abs.gov.au)
- 호주 정부 정보 및 서비스 [www.australia.gov.au](http://www.australia.gov.au)
- 호주 정부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포털 [www.cultureandrecreation.gov.au](http://www.cultureandrecreation.gov.au)
- 외교통상부 [www.dfat.gov.au/geo/australia](http://www.dfat.gov.au/geo/australia)

## 사실 정보

국가 수도	캔버라
면적 본토 해안선 도서 지역 포함 해안선	7백 74만 평방 킬로미터 3만 5천 877 킬로미터 5만 9천736 킬로미터
경작지 비율	6 퍼센트
인구	2천 1백만명
해외 출생 인구	약 22 퍼센트
언어	영어
가정에서 제 2국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	15 퍼센트
화폐	호주 달러 (A\$)
주요 교역 대상국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영국, 한국
경제 인구	1천 28만명
시간 - 3개 표준 시간대  일광절약시간(기준시 +1)	동부: 그리니치 표준시 + 10 중부: 그리니치 표준시 + 9.5 서부: 그리니치 표준시 + 8  일광절약 시간제 (Daylight saving time)가 뉴 사우스 웨일즈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타즈마니아주, 빅토리아주, 웨스턴 오스트레일 리아주에서 10월 초나 말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실시됨.
<b>주요 기념일</b>  건국일 - 호주의 날  부활절  안락 데이  현충일  성탄절	1월 26일  매년 3월 말부터 4월 말 사이  4월 25일  11월 11일  12월 25일



## 국가 상징

### 호주 국명

호주의 영어 국명인 *오스트레일리아*는 ‘남쪽의’ 라는 뜻의 라틴어인 오스트랄리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미지의 남쪽 대륙이라는 뜻인 *테라 오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 (Terra Australis Incognita)*가 존재한다는 전설이 있었고, 그 이름이 이 지역에 대한 탐험 문서들에서 사용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라는 이름은 매튜 플린더스가 대륙을 일주한 후 쓴 ‘*테라 오스트랄리스로의 항해*’ 가 1814년에 출간된 후 널리 쓰이게 되었다. 플린더스가 ‘오스트레일리아’ 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로클린 맥과리 총독이 그 용어를 공식 보고서에 사용하면서 정식으로 이 이름의 채택을 권고하였다. 1824년에 영국 해군성이 대륙의 공식 명칭을 ‘오스트레일리아’ 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호주 국기

1901년 9월 3일 멜번에서 처음으로 게양된 국기는 짙은 파란색 바탕에 영국 이주민들의 호주 정착 역사를 상징하는 영국 국기가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다.

국기에 포함된 5개의 별로 이루어진 남십자성은 남반구에 자리한 호주의 지리적 위치를 상징한다. 6개주를 상징하는 6 개 꼭지점을 가진 연방별은 1908년에 모든 주와 테리토리를 상징하는 7개 꼭지점을 가진 별로 대체되었는데, 7번째 꼭지점이 두개의 테리토리를 상징한다.

이 밖에도 각 주와 테리토리별로 자체 기가 있다.

### 연방 문장



연방 문장은 연방 정부가 그 권위와 소유권을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1912년 국왕 조지 5세가 하사한 것이다. 문장에는 여섯 개의 주를 나타내는 기장이 포함된 방패 모양의 연방 상징 문양이 새겨져 있고, 호주의 국화인 황금색의 와틀과 캥거루, 에뮤도 포함되어 있다.

### 국가 색

1984년 4월 초록색과 황금색이 호주의 국가색으로 지정되었다.

### 호주의 국화

1988년 8월, 황금색 와틀(학명: *아카시아 피크난사*)이 호주의 국화로 공식 지정되었다.

### 호주 국가 보석

1993년 오팔이 호주의 국가 보석으로 공표되었다.

### 동물 문장

많은 사람들이 캥거루를 호주의 국가적 동물 문양으로 여기지만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는 없다.

## 건국일

1788년 아서 필립 총독이 시드니 코브항에 상륙한 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월 26일을 호주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 애국가

1878년 피터 돛즈 맥코믹이 작곡한 Advance Australia Fair (호주여 전진하자)가 1970년대 말 국민가가 되었고, 1984년 4월에 호주 국가로 선포되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Australians all let us rejoice,  
For we are young and free;  
We've golden soil and wealth for toil;  
Our home is girt by sea;  
Our land abounds in nature's gifts  
Of beauty rich and rare;  
In history's page, let every stage  
Advance Australia Fair.  
In joyful strains then let us sing,  
Advance Australia Fair.*

*Beneath our radiant Southern Cross  
We'll toil with hearts and hands;  
To make this Commonwealth of ours  
Renowned of all the lands;  
For those who've come across the seas  
We've boundless plains to share;  
With courage let us all combine  
To Advance Australia Fair.  
In joyful strains then let us sing,  
Advance Australia Fair.*

## 호주 훈장 및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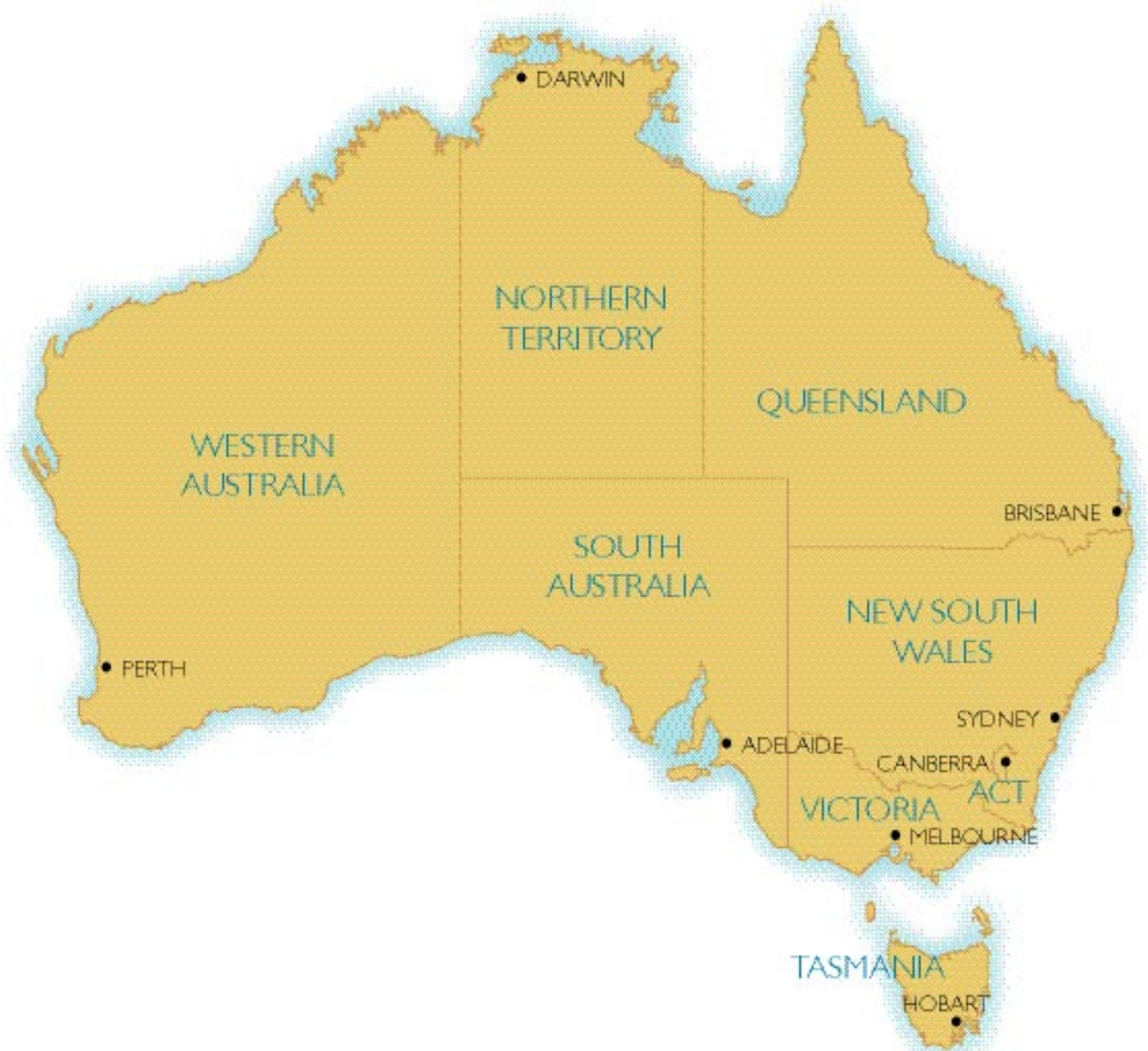
호주의 독특한 상훈 제도는 1975년 호주 훈장 제도 (Order of Australia)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국가나 인류에 대한 공헌 뿐만 아니라 용감한 행동(Australian Bravery Decorations)과 장기 근속(National Medal)으로 지역 사회에 지대한 기여를 한 호주인들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호주 상훈 제도는 특혜나 정치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상훈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고, 독립적인 협의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상훈 제도는 사회의 모범상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인 여망과 이상, 표준을 명확히 하며 이를 권장하고 더욱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호주는 남다르며,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리고 축하하며 이들에게 사의를 표하기 위해 상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온라인 정보

- 호주 상훈제도와 상징 [www.itsanhonour.gov.au](http://www.itsanhonour.gov.au)
- 수상 및 내각부 [www.dpmc.gov.au](http://www.dpmc.gov.au)



# 국가와 국민

호주는 다채로운 대조가 돋보이는, 독특한 나라이다.

종종 '오지(outback)' 라고 불리는 호주의 외딴 내륙 지역은 호주 역사와 신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천 1백만명에 달하는 호주 인구의 75 퍼센트 이상이 도시 거주자로서, 특히 비옥한 동부 해안 평지와 남부 해안을 따라 위치한 주요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호주는 종종 '젊은' 나라로 여겨지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면서 역시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5년 13.1 퍼센트에서 2050년 25.7 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주 및 테리토리별 인구 분포

주/테리토리	인구 (백만)	주도	주도 인구 (백만)
뉴 사우스 웨일즈	6.55	시드니	4.12
빅토리아	4.93	멜번	3.59
퀸즈랜드	3.90	브리스번	1.76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6	퍼스	1.45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51	애들레이드	1.11
타즈마니아	0.48	호바트	0.20
호주 수도 테리토리	0.32	캔버라	0.32
노던 테리토리	0.19	다윈	0.11

(자료 출처: 호주 통계청)

## 기후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국가 중 하나로, 내륙 지역 대부분은 황폐하고 인구가 희박한 평지이다.

그러나, 호주 북부 대부분은 열대 기후 지역이고, 퀸즈랜드의 일부 지역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노던 테리토리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우기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호우가 내린다.

사실 호주는 그 면적이 너무 큰 관계로 눈과 서리가 내리는 지역부터 열풍이 부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대가 공존하는 국가이다.

가장 기온이 낮은 지역은 타즈마니아주와 호주 본토의 동남 고원 지대이며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은 대륙의 중서부 지대이다.



호주의 계절은 북반구와 정반대이다. 여름은 12월부터 2월까지, 가을은 3월부터 5월까지, 겨울은 6월부터 8월까지이며, 봄이 9월부터 11월까지이다.

평균 기온은 7월이 가장 낮다. 호주 남부 지역 대부분에서는 평균 주간 기온이 섭씨 10도에서 20도(화씨 50도에서 69도) 사이에 분포하며 북부 열대 지역에서는 섭씨 20도 후반대나 30대 초반대(화씨 70도에서 80도대)를 기록한다. 해안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문 일이나 많은 내륙 지방에서는 밤새 가벼운 서리가 내리기도 한다. 고원 지대에서는 기온이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보통이며 해발 1500미터 이상 지역에서는 몇 개월 동안 눈이 남아 있기도 하다.

호주 남부 지역에서는 1월과 2월이 가장 더운 시기인 반면 열대 지역에서는 11월과 12월이 가장 더운 때이다. 대부분의 내륙 지역에서는 평균 주간 기온이 섭씨 30도(화씨 80도대나 90도대)를 웃돌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섭씨 40도(화씨 104도)까지도 올라 간다. 남부 해안 지역, 고원 지역과 타즈마니아 지역으로 가면 기온이 내려 간다(섭씨 20도대/화씨 70도대나 80도대).

#### 온라인 정보

- 기상청 [www.bom.gov.au](http://www.bom.gov.au)

### 환경

진귀한 동식물군이 어우러져 매우 다양한 풍경을 이루고 있는 호주는 이러한 생태계와 풍요롭고 다양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전념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 대륙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7천 7백만 여 헥타르에 이르는 구역들이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퀸즈랜드 북부 해안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 공원을 포함한 6천 5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해양 구역들도 보호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호주의 17개 지역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타즈마니아 황야, 퀸즈랜드 열대 우림, 카카두 국립 공원, 노던 테리토리의 울루루-카타 튜타 국립 공원, 로드하우이 군도, 호주 중동부 우림 보호 구역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온라인 정보

- 환경 및 수자원부 [www.environment.gov.au](http://www.environment.gov.au)

### 초기 호주인들

호주에 최초로 거주한 사람은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인들로 이들이 이 땅에 정착해 살아온 역사는 최소 4만년에서 6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유럽에서 이주자들이 호주로 처음 들어온 1788년경에는 호주 대륙 전역에 75만여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 원주민들은 독특한 영적 믿음과 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으며 풍요롭고도 다양한 문화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꼽히는 예술적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호주 원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적 전통 및 언어는 살아가는 곳에 따라 서로 달랐다.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약 700여 개에 달하는 호주 원주민들의 언어와 방언이 사용되고 있었다.

일찌기 항해가들과 교역 상인들과의 접촉이 있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호주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호주로 이주해 오기 전까지는 외부와 왕래가 없었다.

초기 유럽인들과의 접촉은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적 생활 양식과 풍습에 해를 끼쳤으며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안 원주민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960년대까지 호주 원주민들의 문화와 역사는 물론이고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가 없었다. 예를 들면 1965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호주 원주민들에게 연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1967년 90퍼센트 이상의 호주인들이 호주 정부에 원주민들을 위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국가 인구 조사에 원주민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한 국민 투표의 결과는 원주민계와 비원주민계 호주인들이 공동으로 펼친 강력한 운동의 결정판이었으며 호주 정부가 원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었다.

오늘날, 호주 원주민 인구는 48만3천여 명으로, 호주 전체 인구의 2, 3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민 문화는 호주의 국가적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은 예술, 미디어, 학계, 스포츠, 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일부 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원주민 지역 사회가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관장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보건, 주택, 교육, 고용 기회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원주민들이 문화적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땅이거나, 원주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땅을 원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 국토의 약 16 퍼센트가 원주민의 소유나 통제 하에 있는데, 이 땅의 대부분은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온라인 정보

- 가족, 지역 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부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www.facsia.gov.au](http://www.facsia.gov.au)
-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 연구소 [www.aiatsis.gov.au](http://www.aiatsis.gov.au)



## 초기의 유럽 이주자들

1600년대 초부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스페인 탐험가들이 당시 *테라 오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 (미지의 남쪽 나라)라고 알려진 땅의 여러 해안 지역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1770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은 자신의 배인 HM Barque 인데버호로 호주 동부 해도를 작성했으며 이 땅을 영국 왕실령으로 선포하였다. 뒤이어 영국은 이 새로운 전방기지를 죄수들을 수용할 식민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1척의 배로 구성된 함대가 1788년 1월 26일 시드니항에 도착하면서 유럽인들의 정착이 시작되었다. 영국 왕립 해군 대장인 아서 필립의 지휘 하에 시드니에 도착한 이 제1 함대는 750명의 죄수들을 포함하여 약 1500여 명의 사람들을 이 새로운 식민지로 수송하였다.

필립 선장은 그 당시 호주 본토를 지칭하였던 뉴 사우스 웨일즈 식민지의 초대 총독이 되었다.

정착 초기에는 부족한 보급으로 인해 기아와 기근과의 전쟁을 치렀으나, 보급선들이 들어 오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필립 총독이 식민지를 떠난 1792년 무렵에는 첫 정착민들의 숙소였던 텐트들이 사라지고 기초적인 건물들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초기 시드니의 윤곽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시드니는 멀리 러시아나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온 배들로 붐비는 항구 도시가 되었다.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1800년에는 5천명에 이르렀고, 정착민들의 거주지가 내륙 지역인 파라마타까지 확대되었다.

1810년부터 1821년까지, 초기 호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로클린 맥쿼리 총독이 식민지를 다스렸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호주는 유배지에서 죄수 노역을 바탕으로 한 자유 기업이 자리잡은 땅으로 변모하였다.

1820년까지 3만명의 죄수와 4천 5백명의 자유 정착민이 식민지로 이주해 왔다. 자유 정착민들은 계속 번창해 나가는 식민지에서 농장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죄수들은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견뎌 내야 했지만, 결국에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사와 전문직에서 발휘한 수완과 그러한 노고의 대가로 존경을 받기에 이르렀다. 1868년까지 약 16만 명의 남녀 죄수가 호주로 이송되었다.

정착이 시작된 초기에는 대륙의 내륙 지역이나 끝없이 펼쳐진 해안 지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으나, 새로운 담수원과 정착지는 물론이고 농사를 짓고 양을 먹일 땅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거세졌다.

많은 탐험가들이 해안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힘들고 어려운 탐험을 계속했으며,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으로 알려진 산맥을 가로지르는 길을 찾아 서쪽 내륙 지역으로 나아갔다. 후에 다른 사람들이 불모의 놀라보어 평원과 호주 중부 및 서북부 지역을 포함한 호주의 가장 황폐한 내륙 지역까지 들어 갔으며 이 와중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후 30년동안 정착민들이 탐험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내륙으로 들어갔고 거주에 적합한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1825년 밴 디어맨즈 (타즈마니아)가 별도의 식민지가 되었고, 지금의 퀸즈랜드주와 빅토리아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 새로운 정착지가 자리를 잡았다.

양모 산업이 성장하고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에서 1851년에 금이 발견되자 수 많은 자유 정착민들이 호주로 밀려 들어 왔다.

호주의 총 인구는 1851년 43만명에서 1871년에는 1백 70만명으로 3배나 증가하였다.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국 사람들이었으나, 미국과 프랑스, 이태리, 독일, 폴란드, 헝가리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약 4만명의 중국인들이 금을 찾아 호주로 이주해 왔으며 이는 영국인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였다.

## 국가의 탄생

처음에는 뉴 사우스 웨일즈 식민지가 호주 대륙의 거의 모든 동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점차 최초 정착지에서 분리되어 나온 다른 식민지들이 형성되었다.

1852년 이러한 새 식민지들에게 자치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각 식민지들은 서로 별개의 국방과 우편, 교역 및 교통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점차 각 식민지 간의 보다 원활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국가주의에 대한 신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말 경에는 시민사회의 자부심과 경제적 번영의 기운이 넘쳐났다. 국가 최초의 철도선과 전보망이 멜번에서 개통되었다. 시드니와 멜번에서 대학들이 설립되었고, 인상적인 공공 건물들이 세워졌다.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호주는 독립 국가로 발전하였다. 제 1 함대의 상륙 이래 80년간 호주에 주둔해 왔던 영국군이 1870년에 마지막으로 철수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유럽으로부터 '까마득히 멀었던 거리'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이주민들이 호주로 밀려 들어 오게 되었으며, 1880년경에는 호주의 인구가 2백만을 넘어 서게 되었다.

국가 경제는 번영 일로를 달리다 1890년대에 가뭄과 공황에 부딪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뉴 사우스 웨일즈 하원 의장이었던 에드먼드 바턴과 동료 의원들은 이러한 경제 불황을 계기로 교역과 정책, 국방과 같은 문제에 대해 호주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신념을 굳히게 되었다.

1898년과 1900년 사이 호주인들은 연방화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고, 1901년 1월 1일에 6개주를 하나의 헌법 하에 통합하는 호주 영연방이 결성되었다. 그 당시 호주 원주민을 제외한 인구는 3백 80만명에 이르렀다.

호주의 초대 수상으로는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연방 운동을 이끌었던 에드먼드 바턴이 선출되었고, 첫 번째 의회가 1901년 5월 9일 멜번의 엑시비전 빌딩(Exhibition Building)에서 개최되었다.

신생 국가의 설립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호주가 조화롭고 평화스러우며 단결된 국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인권과 민주적 절차의 준수 및 비밀 투표 등에 대해 진보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

호주는 여성들에게 참정권과 의회 참여권을 부여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이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895년에 이미 이러한 권리를 여성들에게 부여하였으며, 1902년에는 모든 호주 여성들에게 참정권과 연방 의회 참여권이 부여되었다.



연방 정부는 1901년부터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1914년까지 호시절을 누렸으며 이 시기 동안 호주의 경제, 특히 농업과 제조업 생산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경험하였다.

1908년 야스-캔버라 지역이 국가 수도 소재지로 결정되었다. 일단 새로운 수도 소재지가 결정되자 1911년에 이를 위한 국제적인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137개 출품작 중 시카고 출신의 건축가인 월터 벌리 그리핀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캔버라는 1913년 3월 12일에 공식적으로 명명되었다.

임시 의사당 건물이 그리핀이 정식 의사당 부지로 제안한 곳 바로 아래에서 1823년 8월 28일 착공되었다. 1927년 5월 9일 캔버라에서 첫 번째 의회가 개최되었다.

## 전쟁의 영향

호주가 국가로서 독립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영국에 대한 정서적이고 가족적인 유대감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1914년 독일의 침공으로 영국이 선전 포고를 하자 호주는 이를 지지해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1차 세계 대전은 호주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1914년 호주의 총 인구는 약 4백 50만이었으며 그 중 남성 인구는 대략 3백만 명 미만이었다. 그런데 41만 7천명의 호주 남자들이 참전을 지원하고 나섰고, 그 중 33만명 이상이 실제 참전하였다. 1918년 종전까지 약 6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5만 2천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호주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중의 하나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와 기개 그리고 '동료 의식' 으로 대표되는 안착 정신이다.

매년 4월 25일이면 호주는 안착으로 알려진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다른 연합군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으나 결국 패배한 1915년 터어키의 갈리폴리 전투를 기념한다.

안착군은 영국, 프랑스, 인도군과 함께 다르다넬스 해협을 돌파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집중 공격해 터어키를 함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갈리폴리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거칠고 가파른 해안선과 터어키군의 철통 같은 방어선에 밀려 안착군은 1915년 12월 20일 결국 후퇴하였다. 8개월 동안 계속된 이 작전은 전투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약 8천 7백명의 호주군 전사자를 낳았다.

오늘날, 안착 데이는 그 작전에 참여한 안착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전쟁에 참전한 호주 군인들을 기리는 행사가 되었다.

두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은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두드러진 시기였으며 특히 대공황을 겪는 동안 많은 호주 금융 기관들이 도산했다.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양모와 밀 가격의 폭락과 영국 자본의 철수, 기타 수출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이 야기되었다. 실업률이 치솟아 1933년에는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국민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모든 전쟁의 종식을 위한 전쟁' 이후 20년 남짓이 지나 호주가 대공황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 세계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939년 영국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독일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였고, 당시 호주 수상이었던 로버트 멘지즈도 호주의 참전을 선언하였다.

2차 세계 대전에서 호주군은 연합군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서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약 4만명에 달하는 전사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내며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이 전쟁을 싸워 이겨낸 세대는 호주의 역량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싱가포르가 함락되고 일본군이 호주 북부에 있는 브롬, 다윈, 타운즈빌을 폭격하고 시드니항에 잠수함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의 파푸아 뉴 기니아에 있는 코코다 트랙을 따라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해 전투를 치러내면서 호주의 문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갈리폴리 전투처럼 코코다 전투도 전쟁에 임한 호주인들의 용기와 기백을 상징하게 되었다. 포트 모즈비를 점령하기 위해 파푸아의 북부 해안에 상륙한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 참혹한 상황에서 4개월 동안 치러낸 이 전쟁에서 총 625명의 전사자와 105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 온라인 정보

- 호주 전쟁 기념관 [www.awm.gov.au](http://www.awm.gov.au)

## 번영과 변화

전쟁 직후 수십 만명의 난민과 이민자들이 호주로 밀려 들어 왔다. 그 당시 호주의 제조업 분야에 능력있는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였다.

1950년대 들어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상대적으로 완전 고용을 이룬 가운데 호주인들은 대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 1947년 40퍼센트에 불과하던 주택 소유율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60년대에는 70퍼센트 이상에 이르게 되었다.

인구는 1945년 7백 40만에서 1960년에 1천 40만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 구성비도 큰 변화를 겪었는데, 비영국계 이민자들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호주의 교역관계에서도 변화를 보여, 1970년대에는 일본이 영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정부의 사회 보장 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1956년에는 텔레비전이 등장하였으며, 그 당시로는 호주 역사상 최대 국제 행사였던 올림픽 경기가 같은 해 멜번에서 개최되는 등 다른 발전도 있었다.

2차 세계 대전 이래 자유당과 국가당 (지금의 국민당) 연합이 40 여년 동안, 그리고 호주 노동당이 20년 동안 집권해 왔다.

사회, 경제 발전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대적인 경제 개혁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경제 성장이 신규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생산성 제고가 호주인들의 생활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해 왔다.



## 온라인 정보

- 호주 국립 도서관 [www.nla.gov.au](http://www.nla.gov.au)
- 호주 정부 문화 레크리에이션 포털 [www.cultureandrecreation.gov.au](http://www.cultureandrecreation.gov.au)

## 호주를 조국으로 선택한 사람들

이민은 호주 건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민자들은 1788년부터 호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 골드 러시 시대에는 평균 5만 여명의 이민자들이 매년 호주로 들어 왔다. 그 이후에도 호주로의 이민은 계속되었고 이는 호주와 다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주었다.

대부분의 초기 이민자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들로, 그들의 앵글로-켈트계 유산이 신생 국가의 기초가 되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에서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국을 등져야 했지만 호주는 극심한 노동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구 증가가 국가의 미래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과 기타 다른 요소들이 계기가 되어 1945년에 연방 이민부가 설립되었고, 그 후 명칭이 바뀌면서 존속해 오고 있다.

1947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이민 붐을 타고 많은 이민자들이 호주로 들어왔으며 그 중에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민을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1901년 연방 정부 수립에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백호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이민자의 출신 지역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민자가 유럽 출신이었다.

1945년 이래로 호주로 이주해 온 이민자 수는 6백 50만에 이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혹은 가난과 전쟁,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민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어려움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였다.

예를 들면, 30개국에서 온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호주의 남부 고산지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인 스노우이 마운틴즈 사업 (Snowy Mountains Scheme)에 종사하였다. 사업은 1949년부터 1974년까지 2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실시되었던 비유럽인 이민 제한 정책은 점차적으로 완화되었으며, 그 때부터 완전히 비차별적인 원칙에 따라 이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민자의 인종과 성별, 민족, 종교 등은 이민 자격 심사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온라인 정보

- 이민 시민권부 [www.immi.gov.au](http://www.immi.gov.au)

## 민주주의와 정부

호주는 시민들이 정부에 참여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회 내각제 체제의 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 제도는 민주주의 전통에 기초하여 종교적인 관용과 결사의 자유를 권장한다. 호주 국가 정부의 중요한 제도와 관행들은 영국과 북미의 전통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 호주 헌법

호주 영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은 1901년 1월 1일 호주 헌법이 발효되면서 연방 국가로 설립되었다. 호주 헌법은 호주 국가 정부의 틀을 규정한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요구된 바에 따라 실시된 국민 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루어진다. 모든 헌법 개정은 과반수 이상의 주에서(6개주 중 4개주 이상)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들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중 과반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 호주 연방 제도

호주는 헌법에 의해 연방(또는 국가) 정부와 6 개 주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체제 정부를 구성한다. 이 밖에도 자치권을 가진 테리토리들이 연방의회에 의해 구성되어 주와 흡사하게 운영이 된다. 지방 자치 정부들이 주와 테리토리 내에 구성되어 공원과 지방도로, 쓰레기 수거 따위의 여러 가지 지역 문제들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 헌법에는 연방 의회가 제정 할 수 있는 법률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외교, 주와 주 사이의 교역 및 국제 교역, 국방 과 이민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다.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해당 주나 테리토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연방법에 배치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입법 분야에는 교육, 도로, 경찰, 화재 및 대중 교통 등이 포함된다.

연방 및 주 정부는 입법(혹은 의회), 행정, 사법의 세 부로 구성된다.

호주의 정부 제도는 영국 의회가 자리한 웨스트민스터 궁의 명칭을 따라 지칭되는 이른바 웨스트민스터 전통에서 많은 것을 차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 내각제는 수 세기에 걸쳐 발전한 것으로, 정부 수반이 국가 수반이 아니며, 행정부가 의회에서 구성되어 국정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법치주의가 존중되며, 사법 제도는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호주의 의회는 그 권한이 주나 연방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웨스트민스터식 의회와 다르다.



## 호주 정부

국가 법률을 제정하는 연방 의회는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원 (Senate), 양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의 의원들은 연방 선거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하원의 최고 임기는 3년이며, 상원은 6년이다 (하원 의원 선출을 위한 연방 선거는 종종 '상원 절반'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상원은 76명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6개 주에서 각각 12명이 선출되고, 노던 테리토리와 호주 수도 테리토리에서 각각 2명이 선출된다. 하원에서 각 주에 할당되는 의석 수는 주 인구 수에 비례해서 결정되는데, 하원의 의석 수는 상원의 두 배, 혹은 실제로 가능한 한 그 수에 가깝게 결정된다. 현재 하원에는 150명의 의원들이 각자 특정 지역 (선거구: electorate)에 거주하는 8만 여명의 유권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정부 (통상적으로 '호주 정부' 로 지칭)는 하원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연합 정당이 구성한다. 수상 (Prime Minister)은 그 당이나 연합당의 의회 지도자이며,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원에서 우세를 점한 당에 의해 지명된다. 정부는 상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할 필요는 없다.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원 발의만 가능한 일부 재정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상, 하원 모두가 입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 선거

새로운 정부는 보통 총선을 통해 구성된다.

호주 정부의 임기는 새로이 선출된 의회의 첫 회기로부터 최고 3년이다. 그러나, 수상이 그 3년의 임기가 다 채워지기 전에 총독에게 총선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1901년 5월 9일에 첫 의회가 개최한 이래 40차례 이상의 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연방, 주 및 대부분의 지방 정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17세 이상의 호주 시민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고, 18세가 되면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은 호주 선거 관리 위원회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 사무소와 우체국, 그리고 AEC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해외 거주 호주 시민의 경우 출국 후 3년 이내에 해외 유권자 등록을 해야 연방 선거에서 계속 투표를 할 수 있다. 등록을 하면 최대 6년까지 유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선거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AEC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호주 시민은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표 불참에 부과되는 벌금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호주는 투표 참여율이 90퍼센트를 상회하는, 세계에서 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힌다. 호주 시민들은 세 단계의 정부, 즉 연방과 주 및 테리토리, 그리고 지방 정부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호주인은 선거시 해외 여행 중이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투표 기간이 시작되었으면 출국 이전에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연방 선거를 위해 전국이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다. 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들 중 선택한다. 1차 선택에서 50%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를 제외하고 투표자들이 투표 용지에 표기한 2차 선택에 따라 표를 다른 후보들 간에 재분배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 후보가 50퍼센트 이상의 표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된다.

선택법은 상원 선거에서도 적용되는데, 후보들은 자신들이 출마한 주나 테리토리에서 특정 '쿼터'의 표를 확보해야 한다.

호주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통치에 대해 유사한 이상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호주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당의 정강 및 정책 수립과 해당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호주 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호주 시민이어야 하며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 그것을 포기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주 및 테리토리 정부

각 주마다 주 정부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 의회가 있다. 퀸즈랜드 주 의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 의회가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의회에 선출된 대표는 일반적으로 의원으로 지칭되며, 입법 의회 (Legislative Assembly) 또는 의회 (House of Assembly) 의원, 입법 심의회 (Legislative Council) 의원이라고도 한다. 주 정부의 수반은 주수상 (Premier) 이라고 한다.

노던 테리토리와 호주 수도 테리토리는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 각 테리토리의 의회는 입법 의회 (Legislative Assembly)라고 하는 단원으로 구성되며, 각 테리토리 정부의 수장은 주 장관 (Chief Minister) 이라고 한다.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법질서, 소비자 문제, 보건, 교육, 삼림, 대중 교통, 주도로 문제 등을 책임진다.

## 지방 정부

지방 정부의 의사결정 기구는 보통 시 또는 샤이어 카운슬 (city or shire council)이라고 부른다. 카운슬은 도시나 지역 사회의 특정 사항들을 관리하기 위해 주 정부에 의해 구성된다. 카운슬에 선출된 대표들을 시의회 의원 (aldermen or councillors)라고 한다. 카운슬의 장은 시장이나 샤이어 회장 (mayor or shire president)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 도로의 보수 및 유지, 쓰레기 수거, 건축 규제, 토지 분할, 공공 보건, 수영장과 같은 여가 시설 등을 책임진다.



## 입헌 군주제

호주는 독립 국가이나 헌법상 호주의 여왕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헌법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왕은 자신의 대리자로서 총독(Governor-General)을 수상의 제청의 의해 임명한다. 총독은 수상의 제청에 따라 장관들을 임명하고, 관례상 모든 문제에 대해 장관들의 권고에 따라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 연방법제도

호주의 법제도는 법 절차상의 정의와 법 앞에서의 평등 정신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반영한다.

호주에서는 사법부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책임진다. 판사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독립을 유지한다.

호주 고등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이 모든 법적 분쟁에 있어서 최고 상소 법원이다. 고등 법원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호주 헌법의 해석이다. 이 법원에서는 특정 법률의 위헌성, 즉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 그 법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 온라인 정보

- 호주 의회 [www.aph.gov.au](http://www.aph.gov.au)
- 호주 선거 관리 위원회 [www.aec.gov.au](http://www.aec.gov.au)
- 호주 고등 법원 [www.hcourt.gov.au](http://www.hcourt.gov.au)

# 오늘날의 호주 사회

현대 호주 사회의 모습을 규정짓는 특징들로는 국민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호주에 대한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치단결된 국민성을 들 수 있겠다.

호주의 또 다른 특징은 호주 사회의 평등성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똑 같거나 모두가 같은 정도의 부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굳은 의지만 있다면 고위직 인사와의 인연이나 후원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호주인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문화와 신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국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호주인들은 어떤 사람도 출생국이나 문화적 유산, 언어, 성별, 혹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안정되고 평화스러우며 번영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호주인들은 출신 배경을 막론하고 호주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동의 원칙과 가치관들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책자 *호주의 가치관과 원칙들* 4쪽 참조.

## 법률과 사회 관습

호주 공동 사회 내에서의 행동은 공식적인 법률과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습에 의해 규제된다.

모든 호주인들은 국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관습과 풍습 그리고 관행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모든 호주인들이 이도 지켜야 한다.

호주 법률은 연방과 주 및 테리토리 의회가 제정하고, 경찰이 그러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사람들은 지역 사회와 거주 지역 내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서로 돕고 이상하거나 수상한 상황을 지역 경찰서에 신고한다.

호주는 연방 경찰 (Australian Federal Police)이라는 국가 차원의 경찰에서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 국가 안보 위해 행위, 환경 사범과 같은 연방 법률을 어기는 범죄 행위를 조사한다. 호주의 모든 주와 노던 테리토리는 자체 경찰력을 갖추고 있어, 주 및 테리토리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에 대처한다. 호주 수도 테리토리의 경찰 활동은 호주 연방 경찰에서 책임진다.

경찰관이 법률 위반자를 체포하고 법정에 증거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유무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찰이 아닌 법원에 의해 내려진다.

호주에서 경찰과 지역 사회는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일반인들은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의 심문을 받을 경우 침착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협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법원과 법률

법원은 정의 구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원에서는 법률 위반 여부와 범죄 행위로 인해 유죄가 인정된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치안 판사가 사건을 심의하고 판결을 내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판사의 지휘 하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피고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 임이 증명될 때까지는 결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특정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호주 체류 자격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범죄 행위

살인, 폭행, 성폭행, 아동 성학대, 대인 폭력 혹은 대물 파손 행위, 무장 강도나 절도, 난폭 운전, 불법 약물 소지 및 사용, 사기, 법적 동의 연령(주마다 다름)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행위 등은 심각한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

호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적, 문화적 관행은 반드시 기존 호주 법률을 준수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주와 테리토리 법률에 의해 생식기 훼손과 같은 관행과 가정 폭력은 금지된다.

### 가정 폭력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타인에 대한 폭력은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폭력에는 가정과 결혼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 또는 가족 폭력이 포함된다. 가정 폭력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성적, 혹은 정신적 학대나 손상, 강요에 의한 성관계나 격리, 또는 경제적 핍박을 경험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약물과 흡연, 음주

불법 약물의 공급이나 소지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울 수 있고, 이의 제조, 공급 및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흡연과 음주는 불법은 아니나 공공 장소에서 이를 이용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흡연은 대부분의 정부 청사와 보건소, 직장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장소에서 금지되고 있다. 식당, 나이트클럽, 술집, 학교, 쇼핑 센터와 같은 실내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몇몇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실외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도 금하고 있다. 소매 상점에서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호주에서 음주는 합법적인 행위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제한된다.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18세 이하의 사람이 집과 같은 개인 소유지 이외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위법 행위이다.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호주 주류 안내서에 설명되어 있다.

### 온라인 정보

- [www.alcohol.gov.au](http://www.alcohol.gov.au)

## 교통법규

자동차 운전은 주와 테리토리 정부의 규제에 따른다. 호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면허 취소, 심지어 구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이용 시에는 모든 사람이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어린이나 유아의 경우 승인된 보호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운전 면허 안내 42쪽 참조.

교통 법규는 속도 제한과 음주 운전에 대해 특별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운전 중 휴대 전화 이용도 불법이다.

## 동물 학대 금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애완 동물과 야생 동물을 막론하고 모든 동물은 인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많은 호주 토착 동물들은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냥에 대해 엄격한 법률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거주 지역 내에서의 동물 도살은 금지되어 있으며, 보통 지역 법률에 의거 애완 동물은 집 안에 두도록 되어 있다. 많은 호주인들이 개나 고양이, 새 등을 집 뒷뜰에서 기른다.

## 총기류 및 기타 무기류

칼이나 화기류 등의 무기 소지는 호주에서 위법 행위이다. 사냥이나 스포츠 사격, 농장에서의 사용 목적으로 총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무면허로 총기를 다루거나 무면허 총기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 기타 법률

쓰레기 투기나 인가받지 않은 쓰레기 처분 행위, 또는 과도한 소음 발생 행위 등도 위법에 해당한다.

호주에는 사형 제도가 없다.

## 사회적 관습

호주에만 적용되는 순 호주식 사회 관습은 거의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강조점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은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유대에 있어서 비교적 비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직장 동료나 친구들끼리 대부분 성을 뺀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형식성이 신체적 접촉에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보통 자신의 오른 손으로 상대방의 오른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는 만났을 때 입맞춤이나 포옹을 하지 않는다.



## 예의바른 행동

'Please' 나 'thank you' 와 같은 말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나 물건을 살 때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매우 유용하다. 차나 커피와 같이 뭔가 권유를 받아 응낙하고자 할 때는 'yes please'나 또는 간단히 'please'라고 말하는 것이 좋고, 원하지 않을 경우 'no, thank you'라고 말하는 것이 예의바른 응답이다. 무엇을 받았을 때는 'thank you'라는 말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예의바르다.

호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고자 할 때 'excuse me' 라고 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 'sorry'라고 보통 말한다. 공공 장소나 다른 사람 집에서 트림을 했을 때 'excuse me'나 'pardon me'라고 말하기도 한다.

호주 사람들은 상점이나 은행, 정부 기관, 극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서는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장 공정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모임이나 기타 방문 등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늦어지게 되면 만날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런 사실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과의 약속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약속 시간 보다 늦거나 오지 않을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은 코를 풀 때 손수건이나 휴지를 이용하며, 인도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라는 말을 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은 종교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 개인 위생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은 음식 조리 전, 식사 전, 기침이나 재채기 후, 화장실 사용 후, 동물 취급 후, 또는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병균 전염이 의심되는 활동을 한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배려한다.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는 병균의 전염을 막기 위해 주어진 집게나 숟가락, 포크, 젓가락, 샐러드 집게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음식을 다루는 것이 관례이다.

## 복장

호주 사람들의 복장은 호주의 다양한 기후만큼이나 다양한 호주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준다. 복장에 대한 법률이나 규칙은 없지만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복장 규정이 있다.

업무 상황에서 벗어나면 복장은 개인의 취향에 따른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함이나 사회적 상황, 기후 등을 고려해 옷을 입는다. 클럽과 극장, 기타 장소에서는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이 요구되며 적절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많은 호주 사람들이 해변이나 바닷가 근처에 산다. 날씨가 더운 날이면 해변이나 그 주변지역에서 수영복이나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호주인들이 해변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러한 복장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몇몇 주에서는 해변가에 ‘nud’ 지역을 지정해 놓아 사람들이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적합한 복장을 할 수 있다.

## 초대

점심이나 저녁, 바비큐, 파티, 결혼식, 생일파티 등의 행사에 초대 받으면 보통 그 자리에서 혹은 나중에 편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수락 여부를 통보해 준다. 점심은 ‘lunch’ 라고 하고, 저녁 식사는 ‘dinner’ 라고 한다. 저녁 식사를 tea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은 정말 차 한잔, cuppa를 같이 하자는 초대일 수도 있다. Tea라는 말로 초대를 받았을 때 시간을 보면 저녁 식사 초대인지, 차 파티에 초대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로 초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tea라는 말이 보통 저녁 식사 초대를 의미한다.

식사 초대를 수락할 때는 보통 초청자에게 자신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알려 주기도 한다. 초대받은 사람은 특별한 식사 요건이나 제한 사항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한다. 본인이 채식주의자이어서 육식을 하지 않거나, 회교도나 유대교인이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초대자가 술을 마셔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 변화해 가는 가족의 역할

전통적인 호주 가족은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가족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편부모 가족과 재혼관계로 이루어진 혼합 가족, 동성 부부, 정식 결혼 없이 함께 사는 부부 (사실혼 관계) 등 많은 가족 유형이 있다. 사실혼 관계는 호주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호주 가족 내 구성원들의 역할도 다르다. 어떤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편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기도 한다.

호주에서 결혼은 쌍방이 혼인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을 때만 성립된다.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이나, 일방이 16세나 17세인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결혼을 인정할 수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두명 이상인 중혼은 불법이다.

## 전형적인 호주인상이 존재하는가?

최근 호주인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면서 과연 표준적인 특징이나 특성을 지닌 ‘전형적인’ 호주인이란 것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호주인의 전형적인 상에 대해 수 많은 말이 있긴 하지만 혼란스럽기만 하고 가끔 그 유형이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호주 사람들은 평등주의자들이며, 권위에 깊은 의구심을 지니고 있는 반체제주의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부분 법을 준수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다.
- 호주 사람들은 대부분 시골이나 삼림 지역에 살며 말수가 적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대도시에서 살며 도시적 생활 양식을 따른다.
- 호주인들은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개방적이고 직선적이며 의도한 바를 그대로 말한다.
- 호주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fair go)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믿는다 (fair go의 정의는 '호주식 영어(Australian English)'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2쪽 참조.
- 호주인들은 친구와 불우 이웃, 약자의 편에 선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자는 스포츠 경기나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상대편을 일컫는 말이다.
- 호주인들은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를 좋아한다.

영국식 전통과 최근들어 밀접해진 미국과의 관계, 혹은 전후 호주로 이주해 온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호주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호주인들은 가끔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태지역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유럽인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호주는 그 지리적 위치와 아시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많은 호주인들 때문에 종종 아시아로의 관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주인들도 쉽게 정형화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호주인상 중 어느 정도 진실인 것도 많고,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그러한 이미지에 어느 정도 맞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까지 맞는지는 개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동료 의식(우정)과 공정한 기회와 같이 호주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몇 특성들은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며 열정과 공정성, 친구끼리의 신의와 같은 것들 역시 호주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성들이 호주 특유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것들이 호주 역사와 호주인의 정신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동료 의식과 공정한 기회의 개념은 이 낯설고 거칠며 종종 적대적이기까지 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치러야했던 호주의 초기 정착민들 사이에서 움트고 자라난 것이었다. 그 후로도 호주의 삼림 지역에서 홍수와 산불, 그리고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온 세대들을 통해 그러한 정신이 더욱 강화되었다.

1867년 뉴 사우스 웨일즈의 그렌펠 금광지대에서 태어난 헨리 로슨은 그러한 시대를 가장 잘 기록한 연대기 작가로, 동료 의식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호주 삼림 지역 거주자들의 삶을 간결하면서도 열정 넘치는 문체로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동료 의식과 신의라는 특성은 그 후 호주가 대전쟁이라고도 부르는 1차 세계 대전과 갈리폴리에서의 안착군 전투를 경험하면서 호주인의 정신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이러한 특성들과 함께 초기 호주인들과 관련된 다른 특성들도 그 후 유럽과 미대륙, 아시아, 아프

리카, 중동 등지에서 이주해 온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의 영향을 받아 단련되고 더욱 풍요로워지면서 오늘날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다.

보다 최근에 호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은 호주의 문화와 특성에 풍요로움을 더해왔고 새로운 가치관과 전통의 융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사업에서 예술, 요리에서 코메디에 이르기까지 호주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걸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 자원 봉사-실질적인 동료의식

호주인들은 무보수로 자발적인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8세 이상의 호주인들 중 6백만 이상의 호주인들이 응급 서비스, 복지, 환경 및 보존, 기금 모금, 관리, 교육 및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자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주의 많은 산불 소방대원들과 응급 서비스 요원들이 자원봉사자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47 퍼센트가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를 그 이유로 꼽았고, 나머지 43 퍼센트는 개인적인 만족을 꼽았다.

## 온라인 정보

- 자원봉사 호주 [www.volunteeringaustralia.org](http://www.volunteeringaustralia.org)

## 호주식 영어

영어가 호주의 국어이지만 널리 쓰이면서 호주 특유의 말로 굳어진 몇몇 단어와 표현들은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거나 혼돈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구어나 속어들은 다양한 어원에서 유래한 것들이다. 긴 단어가 짧게 줄어든 것도 있고, 원래 영국 북부 출신 이민자들이 쓰던 표현들이 호주식으로 변형된 것도 많다. 호주인들은 줄임말을 종종 쓰는데, 예를 들면 football을 'footy', television을 'telly', barbecue를 'barbie' 로 줄여 말한다.

이러한 말들이 풍자와 부적절함을 비꼬는 호주식 유머에 섞여 쓰이게 되면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어떤 표현의 의미가 확실히 이해 되지 않으면 말한 사람에게 설명을 부탁해도 괜찮다.

가끔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rvo:** 오후의 준말- 'drop by this arvo'라는 말은 오늘 오후에 잠깐 들르라는 뜻이다.

**Barbecue, BBQ, Barbie:** 실외에서 가스나 석탄을 이용해서 그릴이나 철판에 주로 고기를 요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인은 샐러드와 빵을 곁들여 낸다. 바비큐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가지고 갈 것은 없는 지 초대자에게 물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Snag은 바비큐 파티에서 쓰는 조리하지 않은 날 소시지를 가리키는 말로,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채소, 곡물류로 만든다.

**Barrack for:** 지지나 응원 (보통 특정 스포츠 팀에 대해 사용).

**Bloke:** 친근감을 주는 남자의 통칭. 도움을 요청하면 '저기 저 친구한테 가 보시오' 라는 뜻의 'see that bloke over there'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Bring a plate:** 파티나 행사에 초대를 받으면 'bring a plate'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파티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한 접시 정도 가지고 오라는 말이다. 학교나 직장, 클럽과 같은 공동체 모임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이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 지 잘 모르겠으면 초대자에게 물어 봐도 괜찮다.

**BYO:** 초대장에 'BYO' 라고 쓰여져 있으면 자신이 마실 음료를 가지고 오라는 말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주스나 청량 음료, 사이다, 물 등을 가지고 가도 좋다. 식당들 중에서도 BYO를 허용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자신이 마실 포도주를 가지고 가도 되지만, 보통 병을 따 주고 잔을 제공하는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 corkage라는 봉사료가 부과된다.

**Cuppa:** 차나 커피 한잔의 의미. 'Drop by this arvo for a cuppa' 라는 말은 오늘 오후에 차나 커피를 한 잔 하러 들르지 않겠냐는 초대의 표현이다.

**Digger:** 호주 군인.

**Go for your life:** 네, 진행하십시오.

**G'day:** 안녕하세요?

**Fair go:** 평등한 대우. 이는 개인이 삶에서 성취하는 것이 타고난 신분이나 특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 노력, 근면성의 결과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Fortnight:** 2주간의 기간을 일컫는 말.

**No worries:** 문제 없다는 말. 일이나 요청을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뜻.

**Ocker:** 촌티나고 투박한 광신적 호주 애국주의자, 또는 뛰어난 유머 감각과 남을 돕는 정신, 재치와 같은 전형적인 호주인 기질을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Shout:** 다른 사람에게 술 사기. 바나 술집에서 친구들이 만날 때 보통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인 동료들에게 술을 산다는 뜻으로 'shout a round' 라는 표현을 쓴다.

**To be crook:** 병이 들거나 아프다는 뜻.

*Macquarie Dictionary Book of Slang* 등과 같은 호주의 구어와 속어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다.

## 경축일과 공휴일

호주인들은 매년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한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간 약 12일의 주/테리토리 공휴일과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러한 날들 중 일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휴일로 지정되며 보통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같은 날 실시된다. 어떤 때는 전국적인 특별 행사를 통해 기념하기도 한다. 주나 테리토리 별로 따로 기념하는 공휴일도 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독교 연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호주 전역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성탄절은 매년 12월 25일인 반면 부활절은 3월 말이나 4월초 사이에 가변적으로 날짜가 정해진다.

## 복싱 데이

복싱 데이는 12월 26일이며 공휴일이다. 이 날은 권투 시합을 하던 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물을 상자에 넣어 주는 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복싱 데이는 성탄절 경축 행사의 일부로 여겨진다.

**신년 초하루**는 매년 1월 1일에 경축하는 공휴일이다. 호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차 휴가를 쓰는 기간이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이다.

**기타 중요한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

## 호주의 날

1월 26일인 호주의 날은 유럽 이주자들이 1788년 처음으로 호주에 정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새로운 이민자들이 호주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동료 호주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특별히 권장한다.

## 안락 데이

4월 25일에 기념하는 안락 데이는 1차 세계 대전 당시 19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터어키의 갈리폴리에 상륙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서, 호주를 위해 싸운 사람들과 전사자들을 기리는 날이다. 이 날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념식과 화환 증정식, 군사 행진 등의 행사가 거행된다.

## 여왕 축일

여왕의 탄신일은 매년 6월의 둘째 주 월요일에 기념하며,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단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9월이나 10월에 기념한다.

## 호주 시민권의 날

호주 시민권의 날은 1973년에 **국적 및 시민권법령 1948**을 호주 **시민권법령**으로 개칭한 것을 기념하여 2001년 9월 17일에 제정되었다. 이 날은 모든 호주인들이 호주 시민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모든 호주인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가치를 기념하는 날이나, 공휴일은 아니다.

## 멜번 컵 데이

멜번 컵 데이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마 대회일이다. 학교나, 직장, 가정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을 멈추고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경마 경기를 시청하는 이 날은 멜번 지역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많은 곳에서, 특히 직장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점심 식사를 하거나 파티를 열어 멜번 컵 행사를 축하한다.



## 스포츠, 여가 활동 및 예술

많은 호주인들이 스포츠를 사랑하며 선수로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많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에서 호주는 메달 집계 순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뒤를 이어 4위를 차지하였고, 2006년도 풋볼 월드컵에서 16강까지 올랐다.

그러나 스포츠를 즐기는 호주인들이 이런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뿐 만은 아니었다. 최근 실시된 전국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호주인들 중 천백만 명 이상이 운동과 여가 활동, 스포츠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신체적인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0 퍼센트에 가까운 참여율이다.

신체 활동 중 가장 인기있는 10가지는 걷기와 에어로빅/피트니스, 수영, 싸이클링, 테니스, 골프, 달리기, 등산, 축구, 네트볼이다.

기타 인기있는 스포츠로는 크리켓과 하키, 스키 등이 있다.

이 이외에 럭비 리그와 럭비 유니언, 호주식 풋볼 (Australian Rules Football)도 직접 경기 참여 뿐만 아니라 관전 종목으로도 호주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스포츠인데, 그 중 호주식 풋볼은 그 부리가 초기 럭비 형태와 개릭 풋볼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독특한 호주식 경기이다.

호주는 야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

- 해변에서 수영을 할 때는 해양 인명 구조대가 있는 곳에서만 해야 한다. 수영 안전 지대 표시를 위해 설치해 놓는 깃대 사이에서만 수영을 하고, 인명 구조대가 없는 해변도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 혼자서는 수영이나 낚시를 하지 않는다. 특히 고립된 지점은 피한다.
- 모자와 선글라스, 셔츠와 같은 보호복을 착용하고, 그늘을 이용하며, 맑은 날에는 태양차단제를 이용해 과도한 햇빛 노출로 인한 화상과 피부암의 위험을 피하도록 한다.
- 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날에는 야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바비큐를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활기넘치는 예술계

호주는 원주민들의 문화적 전통과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다채로운 혼합 문화가 잘 반영되어 활기 넘치는 예술계를 형성하고 있다.

영화와 미술, 연극, 음악과 같은, 모든 형태의 시각 및 공연 예술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호주 성인 인구의 88 퍼센트에 해당하는 거의 1300만명의 사람들이 매년 한 건의 문화 행사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호주 원주민의 이야기에서부터 18세기 말 호주로 이주해 온 죄수들의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강한 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73년 소설가 패트릭 화이트가 호주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20세기 또 다른 인기 호주 소설가로는 피터 캐리 (Peter Carey), 브라이스 코트네이 (Bryce Courtenay), 콜린 맥컬로우 (Colleen McCullough), 모리스 웨스트 (Morris West), 팀 윈턴 (Tim Winton) 등을 꼽을 수 있다.

### 온라인 정보

- 통신, 정보 기술 및 예술부 [www.dcita.gov.au](http://www.dcita.gov.au)
- 호주 협의회 [www.ozco.gov.au](http://www.ozco.gov.au)
- 호주 스포츠 위원회 [www.ausport.gov.au](http://www.ausport.gov.au)

## 과학 부문의 업적과 혁신

호주인들은 과학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과 혁신을 이루었는데, 특히 의학, 기술, 농업, 광업, 제조업 분야에서 탁월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어 낸 사람은 세계 최초로 몇 가지의 석기를 개발하고 부메랑(제대로 던지면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 오는 독특한 모양의 투척용 막대기)과 우메라(창 던지는 도구)를 만들어 낸 호주 원주민이었다.

보다 최근에 호주에서 이루어진 혁신 기술로는 보안 요소를 내장할 수 있으며 수명이 다른 지폐에 비해 4배나 더 오래 쓸 수 있는 중합체 지폐의 개발과 세계 곡물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 유전자 발견을 꼽을 수 있겠다. 호주인들은 의학 부문에서의 업적과 불발 탄약과 지뢰 탐지 기술의 발전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최근 의학 부문의 업적을 살펴 보면, 세계 최초의 항인플루엔자 약품인 리렌자의 개발과 피부암 부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스캔 기술, 경부암 백신 개발 등이 돋보인다.

9명의 호주인들이 과학이나 의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배리 마셜 교수와 의사인 로빈 워런이 위궤양과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발견한 공로로 2005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에는 비퍼 도허티 교수가 면역학 부문에서의 연구 실적이 인정되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매년 호주의 날에는 '올해의 호주인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2005에서 2007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과학자들이 이 상을 받았다. 2005년에는 뿌리는 방식의 혁신적인 화상 치료제를 개발한 피오나 우드 박사에게 이 상이 돌아 갔다. 2006년에는 경부암 백신을 개발한 이안 프레이저 박사가, 2007년에는 뛰어난 환경 과학자인 팀 플래너리 교수가 각각 이 상의 수상자로 지명되었다.

우드 박사와 프레이저 교수는 모두 영국 출신 이민자들이다. 프레이저 교수의 공동 연구자였던 고지안 조 박사도 중국계 이민자로서, 타계 전에 호주 시민이 된 사람이었다.

### 온라인 정보

- 교육과학훈련부 [www.dest.gov.au](http://www.dest.gov.au)
- 호주 역량 지원 [www.innovation.gov.au](http://www.innovation.gov.au)
- 연방 과학 산업 연구 기구 [www.csiro.au](http://www.csiro.au)

# 호주의 생활

## 고용 및 근로 조건

호주 노동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다. 신규 이민자들의 구직 성공 여부는 경제적인 요인, 자격과 기술, 희망 직종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업종별 구직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민자들은 호주에 오기 전에 자신이 희망하는 업종에 대한 전망과 특별한 조건이나 요건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알아 보아야 하며 호주에서는 종사자들에게 주나 테리토리 정부에 등록이나 면허를 받고/받거나 해당 산업이나 전문 협회에 회원 자격을 득하도록 요구하는 업종이 많다.

호주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급여와 근로 조건은 다음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 기본 근로 조건
- 법정 협약 (호주 직장 협약이나 단체 협약) 또는
- 관습법 협약.

호주에서는 모든 일반 및 전문 직업에 대해 남녀 구분이 없다. 근로자가 성별이나 인종, 장애, 종교, 성적 동향에 의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평등 고용 기회법은 사업장에서 진로 개발 기회, 승진, 훈련이 특별 대우나 차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실적과 기술, 경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노조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전문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영주권자는 국립 해외 기술 인정 사무소 (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 NOOSR)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직업 및 기술 인정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호주의 고용 전망과 부족 기술군 및 직업 전망 [www.jobsearch.gov.au](http://www.jobsearch.gov.au)
- 호주 사업장 [www.workplace.gov.au](http://www.workplace.gov.au)
- 기술 이민 [www.skilledmigrant.gov.au](http://www.skilledmigrant.gov.au)
- 사업 자격 인정 [www.workplace.gov.au/tra](http://www.workplace.gov.au/tra)
- AEI-NOOSR [www.aei.dest.gov.au](http://www.aei.dest.gov.au).

## 과세

모든 호주인들은 매년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세 소득은 급여와 사업 수입, 은행 예금 이자 및 기타 투자 소득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 소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상품서비스세 (Goods and Services Tax: GST) 라고 한다.

호주 정부가 징수한 세금은 국민들을 위한 복지와 보건 서비스, 국방 및 주요 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 기간 시설 건립 등에 사용된다.

주 및 테리토리 정부도 특정 거래와 서비스에 대해 인지세 (stamp duties)라는 세금을 징수하여 경찰, 병원, 지역 도로 등의 주/테리토리 정부 사업이나 기간 시설에 대한 지출에 사용한다.

호주의 회계 년도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이다. 호주 법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부 사항과 납부한 세금액을 신고하는 소득 신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주가 개별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납부한다.

## 연금

연금은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 지원을 위한 저축 프로그램이다. 호주에서는 거의 모든 피고용인이 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주들은 법적으로 피고용인의 연금 납입분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이 제도를 고용주 연금 보장 (Employer Superannuation Guarantee) 출연제도라고 한다.

연금과 과세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호주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다.

전화: 132 861

온라인: [www.ato.gov.au](http://www.ato.gov.au)

## 주택

이주 비용은 어디든지 항상 높다. 호주로 이주해 오는 데에는 이사비용과 새집 마련 등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주택과 아파트 (호주에서는 유닛unit, 플랫 flat이라고 부른다)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며 특히 시드니와 퍼스, 멜번, 캔버라에서 더 비싸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임대나 구입은 보통 인가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의 구매나 매매, 임대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거래를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 광고는 보통 토요일자 일간지에 많이 실리며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달 임대료에 준하는 보증금과 한달치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임대인이 집을 비울 때 수리나 청소가 필요할 경우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 준다.



## 사회 보장

센터 링크 (Centrelink)는 호주 지역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금을 제공하는 호주 정부 기관으로서, 저소득층, 은퇴자, 장애인, 구직자, 편부모, 간호인 등,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금과 서비스 지원 여부는 해당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호주 정부는 가장 좋은 지원 방법이 유급 근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센터링크는 특정 상황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에 연계해 주는 일도 한다. 센터링크에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일자리를 찾거나 구직을 위한 기술 개선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난민이나 인도주의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사람들은 보통 센터링크의 서비스와 지원책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규 이민자는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동안 호주에 거주해야 대부분 센터링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 유예 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신규 이민자의 경우 구직 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가족 지원금 등 제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호주 정부의 가족 지원실 (Family Assistance Office)에서 얻을 수 있다.

신규 이민자는 이민 후 가능한 한 빨리 센터링크와/나 가족지원실을 찾아 구직과 관련된 지원과 같이 어떤 권리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 알아 보아야 한다.

### 연락처:

센터링크	13 2850
온라인:	<a href="http://www.centrelink.gov.au">www.centrelink.gov.au</a>
가족지원실	13 6150
온라인:	<a href="http://www.familyassist.gov.au">www.familyassist.gov.au</a>
영어외 언어 사용시	13 1202

## 병원과 의료비

호주 정부는 호주 메디케어 (Medicare Australia)라는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병원 및 의료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 지원 제도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를 통하여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대부분의 의약품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신규 이민자는 여권과 여행 증빙 서류, 비자 정보 등을 지참하고 메디케어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메디케어 제도 등록 적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메디케어 웹사이트 (아래 참조)에 관련 정보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대부분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메디케어에 등록할 수 없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해당 규칙을 모두 만족 시키는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 연락처

전화: 13 2011

온라인: [www.medicareaustralia.gov.au](http://www.medicareaustralia.gov.au)

사립 병원이나 치과 및 안과 진료, 구급차 이용과 같이 메디케어로 지원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 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의료 보험 제도도 있다.

### 개인 의료 보험 연락처

이메일: [privatehealth@health.gov.au](mailto:privatehealth@health.gov.au)

온라인: [www.health.gov.au/internet/wcms/publishing.nsf/Content/private-1](http://www.health.gov.au/internet/wcms/publishing.nsf/Content/private-1)

## 영어 교육

호주 정부는 신규 이민자가 새로운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서 우선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민자의 영어 실력이 '기능적function' 이하로 평가될 경우 성인 이민자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me: AMEP)에서 무료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주에 도착하면 이민 시민권부의 문의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무료 수강 자격과 가까운 AMEP 기관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강 자격이 되면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외에서 받은 경우는 호주 도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강 등록을 해야 한다.

### 연락처

전화 131 881

온라인: [www.immi.gov.au/amep](http://www.immi.gov.au/amep).



## 기타 호주 정부 영어 프로그램

교육 과학 훈련부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주관으로 세 가지 호주 정부 영어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구직자들을 위한 직장 영어 및 읽기 쓰기 프로그램 (Workplace English Language and Literacy programme: WELL)과 언어, 읽고 쓰기 및 산술 프로그램 (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 Programme: LLNP), 그리고 학령기 어린이들을 위한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신규 이민자 대상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New Arrivals: ESL-NA) 프로그램이 있다.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dest.gov.au](http://www.dest.gov.au)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통역 및 번역 지원

전화 131 450번 (호주 국내에서는 시내 요금 부과)을 이용하면 전국 통번역 서비스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National: TIS National)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통번역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을 갖춘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이민 관련 개인 서류의 발체 영문 번역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정보

-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learn-english/client/translation\\_help.htm](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learn-english/client/translation_help.htm)

## 교육

호주법에 따라 5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은 학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취학 연령은 주나 테리토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공립학교를 통해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임시 비자 소지 학생들은 공립 학교에서도 수업료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다니며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 수업료를 내야 한다.

호주의 교육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연령과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진다.

공립학교는 주/테리토리 정부에서 운영하며, 공립학교 등록 정보는 해당 주/테리토리 교육부나 거주 지역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등 교육에는 2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이 있다. 직업 교육 훈련 (VET) 분야의 기관과 사업체에서 시행하는 것과 대학 및 기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고등 교육 프로그램의 등록은 신청자의 비자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고등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호주 정부가 수업료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한편 학생들이 나머지를 부담한다 (연방 지원 정원). 연방 지원 정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 대상자들은 고등 교육 기여 제도 (Higher Education Contributory Scheme: HECS)나 고등교육 대출 제도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 HELP)에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HECS-HELP 대출금으로 학생 부담분 수업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 상세 온라인 정보:

- 교육 과학 훈련부 [www.dest.gov.au](http://www.dest.gov.au)
- 대학 가기 [www.goingtouni.gov.au](http://www.goingtouni.gov.au)

## 운전 면허

운전 면허는 주 및 테리토리 정부에서 발급하고, 신청자는 보통 운전 법규시험, 운전 실기 시험,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유효한 운전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는 운전을 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호주 도착 후 첫 3개월 동안은 출신국에서 사용하던 유효 면허증을 영어로 번역 공증 받아 운전 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적합한 호주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주요 연락처

-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화재, 경찰, 구급차) - 전화: 000
- 전국 통번역 서비스(TIS National) - 전화: 131 450
- 이민 시민권부 (DIAC) - 전화 131 881
- 호주 정부 웹사이트 포털 - [www.australia.gov.au](http://www.australia.gov.au)
- '호주에서의 생활' 웹 페이지 -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index.htm](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index.htm)
- '호주 생활 시작' 안내서 -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beginning-life/index.htm](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beginning-life/index.htm)

# 호주 시민 되기



호주 정부는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들의 호주 시민권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

호주 시민이 되고자 선택함은 호주와 그 국민에 대한 개인적인 신의와 약속을 표명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이민의 여정과 호주를 조국으로 삼고 자 하는데 있어서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영주권자들도 같은 기회를 누리고 있지만 시민이 되면 호주 공동체의 완전하고 공식적인 일원이 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민주적 절차와 선거, 의회 임후보, 공직 근무 등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호주 시민권은 전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국가의 핵심 동력이다.

호주 시민권에는 특권과 의무가 수반된다.

## 시민권의 특권

모든 호주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누린다.

- 호주 정부 선거
- 의회 피선거권
- 호주 여권 신청과 자유로운 출입국
- 속인주의에 입각한 해외 출생 자녀의 호주 시민 등록
- 해외 체류 시 호주 외교 대표부로부터 전적인 영사 지원
- 호주군과 호주 공직에 대한 완전한 고용 기회

## 의무

호주 시민권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반한다.

- 연방, 주, 테리토리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
- 배심원 소집
- 유사시 호주 국방의 의무 (호주 출생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면제권 적용)

\*국민투표는 유권자들에게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결정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에게 있어 시민권 시험의 통과가 호주 시민이 되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신청자는 아래 열거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안내 책자인 *호주 시민 되기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를 참조하여 시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신청이 승인되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시민권 기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해야 한다.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People may choose whether or not to use the words 'under God'.

**‘본인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느님의 이름으로\*  
호주와 그 국민에 충성하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함께 나누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 법률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 하느님의 이름으로’ 라는 부분의 포함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지닌 호주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함과 동시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고유의 전통과 신념을 유지할 수 있다.

호주 시민이 된다는 것은 호주에 충성심을 맹세함으로써 다른 모든 호주인들과 함께 협력하여 강하고, 통일되며 조화로운 국가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신이 지닌 고유한 문화로 호주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호주 시민권 취득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이민 시민권부의 웹사이트나 시민권 안내 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상세 온라인 정보:

- [www.citizenship.gov.au](http://www.citizenship.gov.au)를 방문하거나 전화131 880번으로 문의가 가능하다.